

#1 회사원 서부광(43)씨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집 대신, 회사에서 밥을 보내고 있다. 전기요금 부담 탓에 집에서 에어컨을 마음 놓고 틀 수 없어 냉방이 잘 된 회사에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2 주부 문미영(40)씨 가족은 거실 대신, 중학생 아들의 방에서 열대야를 식히고 있다.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에 거실의 대형 에어컨 대신, 작은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된 아이 방에서 매일 밤 가족이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다.

에어컨 요금폭탄 불만 ‘시한폭탄’

가정집 하루 6시간 틀면 월 18만원... 누진구간 6단계 11.7배 폭등... 요금제 개편 목소리 커져

여름이면 불거지는 가정집 ‘전기요금 폭탄’이 증폭되고 있다. 평소 전기요금을 4만4000원 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000원, 6시간 틀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2배, 4배 이상 불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된다.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 소비자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기 요금제 개편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논문에서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누진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월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단위: 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00 이하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이상
410	910	1,600	3,850	7,300	12,940
60.7	125.9	187.9	280.6	417.7	709.5

적용일자 2013년 11월 21일 기준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다.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다.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조성진 연구위원과 같은 연구원 윤택연 부연구위원은 ‘주택용 전력수요 계절별 패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며 “구조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기저발전 증가 등으로 전력 도매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전기 원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효과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누진제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연남뉴스

“김영란법”으로 자영업자 부채 악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제기

기업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회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점 등의 업종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남뉴스



‘젊은일세 부라더 봉사단’ 5·18영화 오디션 자원봉사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의 지역 대학생 봉사단체인 ‘젊은일세 부라더 봉사단(20기)’이 광주 5.18을 소재로 하는 영화 공개 오디션 현장에 자원봉사로 참여해 영화제작 성공을 위한 작은 초석을 다졌다.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최종 공개 오디션이 진행되었다. 화순 출신인 박기복 감독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현장에는 300여명이 넘는 오디션 참가자와 가족,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해양조 젊은일세 부라더 봉사단 30명은 행사장 동선관리에서부터 촬영, 스태프 보조까지 공개오디션 현장 진행을 도왔다. 또한 무더운 날씨를 감안하여 행사 내외 관계자들에게 생수 300개와 요구르트, 기넨음료를 나눠주며 현장 주요 스태프를 위해 매실 산물세트를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보해양조주 관계자는 “80년 5월의 역사적 사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

로또복권 (제71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7 22 33 37 40	2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085,131,733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2,883,776	46
3	5개 숫자 일치	1,198,943	2,029
4	4개 숫자 일치	50,000	96,576
5	3개 숫자 일치	5,000	1,551,993

기계설비건설협 광주·전남도회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확정 공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기계설비·가스1종 647개(광주 234개·전남 413개)에 대한 2016년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정·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계설비공사업 평가결과, 전남지역 성장이엔씨(대표 김기영)가 2785억으로 광주·전남 전체 시공능력 1위를 차지했고 광주지역에서는 대하산업개발(대표 이정희)가 620억으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으로 광주지역 1위는 삼덕기업(대표 강성수) 94억을, 전남지역 1위 금호산업(대표 박삼구·서재환)이 3037억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설비건설업계의 2015년 총 기성실적은 1조7750억으로 전반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공동주택분야 활황으로 전년 대비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선 7996억을, 이외 타 지역과 해외 현장에서 9754억을 기록했으며 전남지역 소재 성장이엔씨가 2690억으로 광주·전남 지역 1위를 차지했다. 광주 지역 1위는 570억을 기록한 대하산업개발에 돌아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효성, 글로벌 아웃도어 의류 원사 시장 겨냥

효성은 7일 “지난 3~6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아웃도어 리테일러 서머 마켓 2016’(OR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원사 시장을 겨냥해 시장 확대에 나선 것이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땀냄새를 제거하는 소재 ‘프레쉬기어’(freshgear)를 비롯해 시원한 느낌을 주는 냉감 소재 ‘아쿠아-엑스’(aqua-X)와 ‘아스킨’(askin),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힐링 소재 ‘마이판핏’(MIPAN? fit)과 ‘에어로기어’(aerogear), 폴리에스터 원사이면서도 천연소재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을 지닌 감성 소재 ‘코트나’(cotna) 등 고성능성 나일론·폴리에스터(PET) 원사 브랜드를 대거 선보였다. 이 중 프레쉬기어는 땀냄새를 유발하는 암모니아(특 소는 냄새)와 아세트산(시름한 냄새)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해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신제품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효성이 3일부터 4일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아웃도어 리테일러 서머 마켓 2016에 참가해 고성능성 나일론, 폴리에스터 원사를 선보이고 있다. /연남뉴스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최고로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 ECO**

www.yhb.co.kr

PTB7000 | PTB5000 | PTB-W5000(수냉식) 업소 주방에 최적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프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응접실,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산서버룸

특장점: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고온 및 습기에 강력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 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지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오신동) ☎062-952-6633 인산공정 전복 익신사 석림로12길 41(용정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장리 | Step 2. 단열방수시트 |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댕다구요? **20년을 가는데!!!**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2중안벽 단열방수 | 냉난방비 절감 |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목포대리점 (061) 284-0485 | 여수대리점 (061) 683-0485 | 순천대리점 (061) 726-0482 | 광양대리점 (061) 795-0485